

김영수 시와 문학지리학*

박 태 일**

목 차

1. 들머리	1) 설화공간의 수용과 확대
2. 김해지역과 지리학적 상상력	2) 직접체험과 역사적 시간성
1) 김해시 중심의 부분지역성	4. 마무리
2) 가야사 중심의 역사지리	도움글
3. 장소이미지와 재장소화의 두 방향	

1. 들머리

문학과 지리학은 사뭇 다른 영역이다. 소박하게 보더라도 문학이 사람의 삶과 그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일들을 말글로 형상화하는 예술양식인데 견주어, 지리학이란 사람이 터잡고 살아가는 땅의 성격을 합리적으로 밝히고 풀이하는 학문영역을 뜻하는 까닭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문학과 지리학은 둘 다 사람의 나날살이가 이루어지는 생활세계나 장소를 문제 삼는다는 점에서 분명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근대지리학이 성립된 뒤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리학의 인식론과 방법론은 여러 길로 모색되어 왔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한결같은 흐름을 찾을 수 있는데 큰 안목에서 인간성 상실로부터 인간성 회복과

* 이 글은 경남대학교 가라문화연구소 연구비로 이루어졌다.

** 경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강조라는 방향이 그것이다(이상석, 1990:126).¹⁾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방법론으로 일컬어지는 것이 인간주의 지리학 Humanistic Geography이다. 인간주의 지리학은 지리학이 사회과학으로서 보다 과학적이기 위해서는 사람의 잠재력을 이해하고 지리적 환경 안에서 사람의 다양한 의식작용을 인정함과 아울러, 지리적 세계에 대한 주관적 경험의 뜻을 이해해야 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생활세계 안쪽 존재로서 사람의 자율성·주관성을 특히 강조하게 된다.²⁾

인간주의 지리학으로 말미암아 생활세계 개념은 주관적·실존적 공간 이해에 밀바탕이 되었으며, 구체적 경험대상으로 장소는 그 주제로서 중요성이 크게 높아졌다(정진원, 1984:79~80). 인간주의 지리학이 사람과 장소의 정서적 유대를 뜻하는 장소감 sense of place, 지경외 geopiety 또는 장소사랑 toponophilia과 같은 개념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생활세계에서의 공간경험이나 장소감을 중시하는 그 특유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장소 연구야말로 곧 삶의 연구(A. Briggs, 1967:96)가 된다.

인간주의 지리학에 영향을 입고 새로 발전되기 시작한 연구분야 가운데 하나가 문학지리학이다. 이것은 크게 말해 경관이나 장소에 대한 해설로서, 또는 지리학적 현상으로서 문학작품을 연구하는 것을 뜻한다. 문학은 지리학자의 연구자료가 되며, 또한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세계를 경험하는 방법에 대한 어떤 시각을 제공한다고 보는 것이다. 소설과 시가 환경적 가치의 중요한 뿌리라고 린치(1986:431)가 말했을 때 그는 이미 문학지리학적 인식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었던 셈이다.

우리 학계에 처음으로 문학지리학을 널리 알리고 있는 이는 이은숙(1992)이다. 그녀는 포코크(1981:17~18)의 생각에 힘 입어 지금까지 문학지리학의

-
- 1) 근대지리학은 크게 실증주의와 구조주의 그리고 인간주의라는 세 패러다임이 서로 연관을 주받으면서 발전되어 왔다. 이에 대해서는 이상석(1990)이 잘 간추려주고 있다.
 - 2) 지리학에서 인간주의 관점이란 객관적·양적·기하학적인 '사실중심적' 공간개념을 주관적·질적·위상수학적인 '인간중심적인' 공간개념으로 옮겨감으로써 지리적 세계를 주관적 의미연관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태도다(정진원, 1984:79). 공간이나 장소에 관련된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 사람의 지리적 행동, 그리고 사람과 자연 사이 관계를 연구함으로써 인간이해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주제를 다음과 같이 간추리고 있다. 첫째 지리학의 증거로서 문학작품을 탐구하는 것, 둘째 사람과 장소에 대한 실제적인 자료를 얻는 것, 셋째 문학작품 속에 나타나는 장소에 대한 개념적인 틀을 밝히는 것, 넷째 인간 경험의 다양한 특성을 되살려내는 작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학을 지리교육의 도구로 이용하기 위한 가능성 모색이 그것이다. 그런 다음 그녀는 문학지리학의 방법을 크게 두 범주로 나누었다. 문학작품의 객관적 이용과 문학작품의 주관적 이용이 그것이다.³⁾

물론 문학지리학의 시각이나 방법은 지리학 연구에 중심이 놓여 있다. 그러나 중심을 문학 쪽으로 옮긴다면, 문학 연구에 새롭고도 쓸모 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문학작품의 주관적 이용이 그렇다. 사회학적 상상력과 더불어 지리학적 상상력, 곧 장소와 공간에 대한 감수성의 문제⁴⁾야말로 문학연구의 주요한 주제다. 도시화, 후기자본주의의 기술적, 경제적 진행에 따라 무장소성(placeness)의 증대를 주요한 삶의 조건으로 하고 있는 오늘날 문학지리학은 생태문학, 도시문학, 지역문학 연구와 넘나들면서 이바지할

-
- 3) 그녀에 따르면 문학작품의 객관적 이용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첫째, 문학작품에 나타나는 지리학적 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일이다. 곧 작품 배경장소의 지리학을 연구하는 초기 접촉방법을 말한다. 둘째, 지리학이 문학에 미친 영향을 밝히는 일이다. 셋째, 문학작품을 지역 복원을 위한 자료로 쓰는 일이다. 넷째, 문학작품을 빌어 특정시대의 지리학적 지식에 관한 사실적 증거를 모으는 일이다. 다섯째, 문학작품을 지리교육의 도구로서 쓰는 일이다. 문학작품의 주관적 이용에도 다시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 특정한 환경과 경관 그리고 도시에 대한 체험이나 이미지를 문학작품을 빌어 밝히는 일이다. 둘째, 같은 사람이나 집단이 같은 장소에 대해서 서로 맞서는 이미지를 아울러 갖는 경우를 조사하는 일이다. 셋째, 같은 장소에 대해 서로 다른 작가들이 지니고 있는 서로 다른 이미지를 밝히는 일이다. 넷째, 같은 장소에 대해 시기에 따라 이미지가 달라지는 경우를 밝히는 일이다. 다섯째, 문학작품을 빌어 장소가 의미를 얻게 되는 과정을 따지는 일이다.
- 4) 사람은 장소의 의미를 개별화하고 추상화하는 능력과 상징능력을 빌어 공간을 실존적 의미들의 구성요소로 만든다. 거꾸로 장소는 사람에게 정체성을 주고 공동체 사회나 지역성의 기반을 제공한다(C.W.Schulz, 1991:12). 그리고 한 번 마련된 장소감은 우리의 감수성을 통하여 거듭 재장소화된다. 장소감과 그것의 재장소화라는 역동적 과정 속에서 지역이미지가 놓이게 되는 것이다. 지역이 미지나 장소감을 주요 동기로 삼고 있는 시들을 편리를 좇아 장소시라 부를 수 있다면, 그들을 빌어 우리는 문학 지역주의의 한 양상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몹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 글은 김영수 시를 대상으로 김해의 지역이미지와 장소감을 따져 보고자 하는 문학지리학 쪽 연구이다. 이 일을 빌어 우리시 속에서 김해지역이 어떤 이미지로 비치고 있는가를 알아볼 뿐 아니라, 지역연구⁵⁾에 이바지할 수 있는 디딤돌을 하나 더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김영수는 시조시단에서는 이미 이름이 잘 알려진 김해지역 토박이 시인이다. 그의 시는 자신이 나고 자란 김해지역에 대한 남다른 향토사랑, 장소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현대시사에서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리학적 상상력의 좋은 본보기를 남겼다. 특히 시조집 「龜何龜何」에 실린 ‘향토의 노래’는 이 점을 오롯이 보여준다.

2. 김해지역과 지리학적 상상력

김해지역은 우리 근·현대사 속에서 유달리 큰 변화와 변동을 겪어 온 곳이다. 나라잃은시기 김해들의 개간과 인력·경제 수탈에 따른 변모, 경인년 전쟁 뒤부터 부산의 위성도시로서 겪었던 사회변동은 우리나라 다른 지역이 겪어보지 못한 것이라 하겠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이 사정은 줄어들기는 커녕 그 정도가 오히려 더해 가고 있다. 행정 쪽에서 볼 때 김해지역은 이미 많은 땅을 부산시에 빼앗겼다. 인위적으로 그은 경계가 옛부터 지녀왔던 지역성과 지리적 동질감을 크게 갈라 놓았다. 뿐만 아니라 김해시에 의한 변두리 김해군 지역의 종속화도 아울러 깊어가고 있다.

김해시만 놓고 보면 김해시는 아직까지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일을 볼 수 있는 보행도시 pedestrian city에 가깝다. 그러나 그 구성원들의 사회문화적 동질성이나 공동체로서 지닐 바 상호작용적 관련은 이와 달리 크게 떨어

5) 지역에 관한 연구는 지역과학 Regional science과 지역연구 Area studies라는 두 유형이 있다. 지역과학이 과학적·법칙정립적 방법으로 어느 지역에도 통용되는 일반법칙을 발견하려는 것인데 견주어, 지역연구는 지역 내부의 개성발견적·개성기술적 방법으로 지역특유의 문화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北村貞太郎, 1972:6). 이 둘은 마침내 통합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진다. 부산지역에서 들어온 많은 사람과 낮과 밤 사이 잦은 일시출입 탓에 사회적 이동뿐만 아니라 인구 이동과 순환이 발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그에 따라 사람과 사람 사이는 더욱 낯설어지고 정서적 이질감도 덩달아 깊어졌다. 생태적 입장에서 보면 산업 재편에 따른 토지사용의 이질화, 거주지와 공장지대·농업지대 또는 상업지대의 격리현상, 도시의 혼잡과 공해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

이러한 발빠른 변화와 변동 탓에 오늘날 김해지역은 지역 공동체로서 지녀야 할 여러가지 특성을 많은 쪽에서 잃어버렸다. 따라서 짧은 몇 해 동안 6) '향토의 노래'를 지어 향토 김해를 오롯이 담아보고자 했을 시인으로서 먼저 지역을 대표하며, 지역민들에게 상징적 동질감을 주는 주요 경관이나 장소로 무엇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문제로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지역민뿐 아니라 바깥사람들에게도 김해 지역을 알려주는 좋은 본보기 이미지로 남을 터이기 때문이다. 김영수 시에 나타나는 김해의 지역이미지와 장소감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그 선정의 특성을 살핀 뒤, 그것의 인식이나 표현 특성을 따져야 할 까닭이 여기에 있다.

1) 김해시 중심의 부분지역성

김해지역의 주요 경관이나 장소로 시인이 무엇을 어떻게 이끌어내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들에 대한 일반적 인지 경향을 살필 필요가 있다. 이 일을 위해서 먼저 김해지역의 주요 경관이나 장소를 널리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기록 7건을 찾아 간추렸다.⁷⁾ 그런 다음 그 속에서 2회 이

6) 논의대상으로 삼은 작품은 김영수 시조집 『龜何龜何』에 실린 '향토의 노래' 19편이다. 이 속에는 앞선 시조집에 이미 실렸던 것도 몇 있다. 1979년 첫 시조집 『萬丈臺』에 실린 <萬丈臺>와 1982년 『봄에』에 실린 <神魚山>, <招仙臺>, <黃洗바위>, <盆山城에서>, 그리고 1981년 『어머니』에 실린 <龜旨歌> 6편을 뺀 나머지 13편만이 1984년 『龜何龜何』에 처음 실린 것들이다. 따라서 단순히 개수만으로 셈해 보면 시인은 크게 1979년 여름에서 1984년 사이 5년 남짓 동안 '향토의 노래' 속 작품들을 속으로 공굴려 온 셈이다.

7) 글쓴이가 도움 받은 자료들은 아래와 같다. 이 안에서 '명승경관', '불만한 곳'

상 되풀이 들나고 있는 것만 들면 아래와 같다.

만장대(타고봉, 분산성:6회)	구지봉(5회)	초선대(5회)
수로왕릉(4회)	허왕후릉(파사석탑 : 3회)	봉황대(개라암 : 3회)
낙동강(남포, 황산강, 삼차강 : 2회)		상계폭포(2회)
신어산(영구암, 서림사 : 2회)		연자루(2회)

집필 목적이나 선정 의도, 또는 기록 연도에 따라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을 것임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⁸⁾ 크게 보아 오늘날 김해지역을 널리 알고 있는 주요 경관이나 장소가 죄 들었다 하겠다. 이 가운데서 다시 3회 이상 되풀이 들나고 있는 것을 보면 만장대, 구지봉, 초선대, 수로왕릉, 허왕후릉 다섯이다. 이들이야말로 김해지역의 중심장소로 알려진 것들이라 보아 무리가 없다. 이제 시인의 작품에 나오고 있는 것들을 들면 아래와 같다.

또는 '명소·구적'으로 선정된 것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김유동(1929), 朝鮮名勝古跡.

아부훈 엮음(1937), 朝鮮都邑大觀, 민중시론사.

경상남도(1937), 慶尙南道道勢概觀, 경상남도.

양승운 엮음(1956), 嶺南史蹟과 史話, 교통문화사 대한지편찬실.

한국일보사(1980), 韓國의 旅路⑧ : 釜山, 한국일보사.

권정석 옮김(1984), 國譯 金海邑誌, 김해문화원.

김해시 문화공보실(1987), 駕洛의 傳說, 김해시.

- 8) 집필의도로 보면 「김해김씨세덕사」(1956)나 「駕洛史記」(1979)와 같은 책들은 씨족 중심의 유적 선별을 하고 있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울러 학술적 관심이 앞선 박경원(1955)이나 허성도(1957), 너무 꼼꼼하게 들여보이고 있는 「교남지」(1985)나 거꾸로 너무 엉성한 이무영(1948)도 대상 선정의 뜻이 없다고 보아 빠졌다. 횡수로 볼 때 도움 받은 자료들은 조선 후기에서 1980년대에 이르는 거의 100년 어름에 이루어진 기록들로 보는 것이 옳겠다. 따라서 그 사 이 이미 사라져버렸거나 풀이 크게 달라진 것도 슬하다. 외장대, 연자루, 향정, 금천교와 같은 것과 비행장 공사로 사라져버린 칠절암 그리고 병마절도사 대비들은 일반 기록들에서 한 번 두 번 정도씩 들날 것들인데 지금은 볼 수 없다. 그리고 조금씩 다른 경관이나 장소라 하더라도 하나로 묶어볼 수 있는 것이 있다. 타고봉, 분산성, 만장대는 분산 꼭대기 한 영역에 몰려 있는 탓에 만장대로 묶어 볼 수 있다. 낙동강 경우도 마찬가지다. 물금쪽에서부터 김해 독이 만들어져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김해들이 만들어지기 앞선 시기의 낙동강 세 줄기에 걸친 경관을 보여주는 황산강, 남포, 삼차강 들은 하나로 묶일 만하다. 봉황대와 한 줄기를 이루고 있는 개라암, 곧 황세바위도 마찬가지다.

수로왕릉(왕릉공원 : 4회)	봉황대(황새바위 : 2회)	만장대(2회)		
구지봉(2회)	허왕후릉	초선대	신어산	임호산
노적봉	선유대	능현	유궁	

들을 전주어보면 김영수의 ‘향토의 노래’ 19편에서 김해의 전반적 경관을 그리고 있는 <街路燈>을 빼 18편 18곳 가운데서 앞선 일반 기록에서 1회 이상 들나고 있지 않은 것은 노적봉, 능현, 유궁, 임호산 넷뿐이다. 일반 기록에서 2회 이상 들나는 것들과 다시 전주면 임호산만 더해진다. 일반 기록과 김영수 시인의 대상 선정 경향이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시인은 ‘향토의 노래’를 마련하면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주요 경관이나 장소를 그대로 이끌어 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거의 김해지역에서도 김해시를 중심으로 한 곳들이다.⁹⁾ 옛부터 김해지역의 중심지는 봉황대와 읍성이 있었던 지금의 시가지였다. 이로 미루어 본다면 일반 기록이나 시인의 선정에서 드러나는 김해시 중심 현상은 어쩌면 당연하다. 말하자면 정치, 경제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볼 때 김해지역은 현재의 김해시를 중핵으로 하고 그 바깥 현재의 김해군 지역을 변두리로 하는 결절지역¹⁰⁾이었다. 따라서 김해의 주요 경관이 김해시 중심으로 한정될 개연성이 그만큼 높았다고 할 수 있다. 시인은 이 점을 그대로 따랐다.

김해의 지역이미지는 이제껏 많은 변모를 거듭해 왔고 앞으로도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러 그것은 더욱 발차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보기로 초선대만 들더라고 이미 발차까지 공업단지가 들어서, 신선이 노닐었다는 아름다운 이미지와는 크게 달리 불성 사나운 돌무지로 버려져 있다. 그

9) 거기에서 빠지는 것으로 <綾峴>, <유궁>, <露橫峯>, <仙遊臺> 네 편이 있을 뿐이다.

10) 지리학에서 지역이란 어떤 특정 속성 또는 요소에 바탕을 두면서 잣대에 따라 갈라놓은 하나의 공간 범위다(임덕순,1990;261~265). 지역을 크게 나눌 때 동질지역과 결절지역으로 나눈다. 동질지역은 지점끼리 상호작용이 없거나 극히 약하며 내부가 정적인 지역을 말한다. 결절지역이란 중심지와 배후지 사이의 상호작용이 활발하며 내부가 역동적인 지역을 뜻한다. 말하자면 장소들 사이의 기능차에 근거해 일어나는 공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조성된다.

러나 그러한 변모 속에서도 한결같이 남아 있는 친밀지역, 또는 중심장소가 말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는 주요한 상징임에 틀림 없다.

김영수 시인이 오랜 향토사랑에 힘입어 끌라낸 경관이나 장소는 어쨌든 김해지역의 역사적·문화적 동질성을 살릴 수 있는 것들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속에 안온하게 몸담고 있다는 진정한 장소감, 거기에서 비롯되는 장소 사랑은 변화와 지속이라는 시간감 속에서 새로운 추억과 더 많은 친밀감을 얻어낼 때에만 거듭 살려질 수 있는 것이다. 도시화에 다른 정치경제적 공간 훼손과 장소의 익명화 속에서 늘 뜻 있는 장소에 대한 재장소화가 거듭 되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런 점에서 김영수 시조의 장소 선정은 더 나아가야 할 일의 첫매듭을 마련한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무리를 하나로 묶어주고 공동의 추억이 배여 구성원들에게 중요한 초점이 되는 장소이미지가 거듭 공동체 구성원들에 되살려지고, 교육되어야 하는 것이다. 김영수 시인의 '향토의 노래'는 김해시를 벗어나 지역사회 곳곳에서 더 많은 주요 경관이나 장소를, 더 많은 친밀영역을 힘 있게 이끌어냈어야 했다.

2) 가야사 중심의 역사지리

특정 장소의 이미지나 장소감은 편리를 좇아 살핀다면 물질적인 쪽, 정신적인 쪽, 사회적인 쪽으로 크게 나누어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때 물질적인 쪽의 것은 엄밀한 뜻에서 찾기 힘들지 모른다. 왜냐하면 물질적이라는 말에 걸맞는 순전한 자연경관이란 있을 수 없고 문화경관만 있을 뿐(J.W.Miller,1987;15)이기 때문이다. 어떤 경관이나 장소에서 요구되는 어떤 특징, 곧 환경적 가치는 자연적 사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물에 대한 우리의 깨달음이나 직관력에 있다. 어떤 경관이나 장소든 그것을 느끼고 겪는 사람의 의식과 상호작용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 사람의 의식성향 또는 관심의 차이에 따라 지역이미지나 장소감이 매우 다른 양상을 띄게 될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그것을 읽어내는 방식도 다양한 해석으로 열려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시인의

작품을 읽어 나갈 필요가 있다.

거북아, 하늘의 일이 네 등에 왕터를 짓고
우추린 목을 베어 생피로 적시거나
옛땅을 부둥켜 안고 올 제단을 차려라.

鰲洛國 님이 잡든 바람 찬 베갯머리
미투리 낚은 겨울이 수 천년을 업어 가고
대들보 썩어 기름진 벌, 식곤증만 도는가.

거북아, 너도 식어 고궁의 돌이 되면
오백년 사적을 지고 너도 차마 돌이 되면
들끓는 바다를 재울 사람 무삼 일로 빚어라.

- <龜旨歌>

김수로왕릉, 곧 남릉 옆 연못에 놓아두었던 작은 돌거북이를 글감으로 삼았다. 왕릉을 짓고 다듬는 공사로 말미암아 요즘 들어 사라져 버렸지만, 예사로이 깎아 둔 “고궁의” 돌거북 하나를 빌어 잊혀져버린 “가락국”을 되새기고 그에 대해 더해 오는 아쉬움을 담아보고자 했다. 하찮은 돌거북 하나를 두고 가야 역사를 이끌어내는 이러한 마음가짐이야말로 역사지리적 상상력이라 부를 만하다.

시인은 하나의 경관이나 장소 또는 그 안의 특정 대상에 대하여 여러 층위에서 그 뜻을 읽어낼 수 있을 터이다. 그런데 그는 정치, 경제, 사회 또는 생태와 같은 사실적 인지 층위보다는 거기에서 더 깊이 들어가 내적 역사 층위에만 유별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셈이다. ‘향토의 노래’에 실린 19편 가운데서 17편이 경관이나 장소의 역사적 연원이나 과거 역사에 대한 회고, 또는 그들과 대화를 피하는 일에 거듭 힘을 바치고 있어¹¹⁾ 한결같은 역사지리적 상상력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특정한 시대에 치우치고 있음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가야 유적이거나 그와 관련되는 관심이 그것이다. 시인에게 있어 김해지역의 역사지리란 마침내 먼 옛대 가야사와 처음과 끝을 같이한다. 이런 탓에 그의 역사인식

11) 빠지는 작품은 <詩肅展>, <露積峯> 두 편뿐이다.

이 다분히 추상적이고 막연할 것은 뻔한 이치다.

설령 오백년 社稷 허물리어 자취 없고
 봉황새 九天을 울어 죽지마저 젖는데도
 백성이 하늘이거든 칼 거두고 오너라.

- <鳳凰臺> 가운데서

‘봉황대’는 그 아래 구룡에 부원동과 회현리 조개무지를 거느리고 서북쪽 으로는 황새바위를 품어 안고 있는 가야나라 초기 궁성터로 알려진 곳이다. 이 시는 궁성터라는 개별성에다 눈에 잘 띄는 지표물landmark 가운데 하나인 그 봉황대를 바라보며, “봉황”으로 표현되고 있는 “오백년 社稷”과 그 물락을 말하고 그 내림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작품이다. 옛 궁성터를 두고 시인이 겪는 회고적 심사만 돋보일 뿐, 가야사에 대한 이해가 매우 막연하다. 이런 점에서 가야사에 대한 그의 눈길이 상대적으로 허왕후 유적에 기울어져 있음은 어쩌면 자연스런 일일겠다. <許王后陵>, <納陵正門>, <綾峴>, <유궁> 네 편이 허왕후와 곧바로 관련된 것이고, <街路燈>이 허왕후의 김해입성 이야기를 시 줄거리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모두 다섯 편이 허왕후에 관련된 시다. 이것은 열아홉 편 전체로 보나, 지아비 김수로왕 관련 두 편의 시¹²⁾와 견주어 보면 그 비중이 높다는 것을 쉬 알 수 있다. 가야 유풀의 알 수 없는 역사적 실증에 매이기 보다는 신성한 여성이며 기록된 첫 국제결혼의 주인공인 허황옥이 지니고 있는 신비로운 흥미소 탓에 시적 연상을 그 쪽으로 이끌어 나가기 쉬웠을 것이다. 뿐 아니라 읽는이에게도 적절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 생각한 듯싶다. 그의 가야사에 대한 인식이 매우 추상적이고 막연했던 까닭에 의도된 배려였던 셈이다.

김해지역은 가야사 뿐 아니라 그 뒤로도 특별한 경험을 겪었고 그것이야말로 우리 겨레사나 국가사와 같은 거대역사와 달리 김해지역이 오로지 하는 지역성 개별성¹³⁾이라 할 수 있을 터이다. 곧 시간변화에 따라 하나의 장

12) <詩畫展 風景>은 수로왕릉 옆에 있었던 왕릉공원을, <龜旨歌>는 그 공원 연못에 있었던 돌거북을 글감으로 잡은 것이어서 수로왕과 직접 관련이 없다.

13) 린치(1988:18)는 환경 이미지를 개별성identity, 구조, 의미라는 상호종속적인

소는 그 나름의 의미변화를 거쳐 재장소화가 일어나며, 그에 따라 개별성도 달라지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점을 시인은 담아내지 못했다. 그의 장소인 식은 가야사, 그것도 신비롭고 영화로웠던 가야라는 틀에 박힌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셈이다. 다만 <萬丈巖> 한 편이 임란사를 다루고 있어 이채롭다.

옛성터 가을풀은 어머니 헤진 옷자락
 南海를 할퀴며 오던 미친 떼바람 앞에
 山머리 몸으로 陣을 쳐 피웃 입고 굳었던가.

罪 없는 고갯길은 주리틀듯 굽이 휘어
 三千里 풀빛 몸에 웅이는 박혀 가고
 草屋도 잠재우지 못한 발 시리던 國土여.

千年 이슬은 내려 비린 몸 씻겨갔건만
 祠堂 바깥을 도며 흐느끼는 마른 魂들
 돌로도 누르지 못한 아, 血竹 퍼런 서슬이여.

- <益山城에서>

가을풀 우거진 “옛성터” 분산성에서 세월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임란으로 겪었던 원통한 사연들, 아직까지 살아 있는 겨레의 기개를 울긋불긋 물든 가을풀과 그럼에도 늘푸르게 살아 있는 “血竹”을 견주어 말하고자 한 시다. 첫도막에서는 가을풀 울긋불긋한 모습을 “어머니 헤진 옷자락”이라 하여 생각을 일으킨 다음, 그것을 곧바로 “미친 떼바람”처럼 밀려왔던 왜놈 오랑캐와 싸우다 숨겨간 옛사람들의 “피웃”으로 잇고 있다. 가을풀을 빌어 임진왜란으

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김해지역의 개별성은 앞으로 그 쪽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살피고 따져보아야 할 과제이다. 얼핏 모아보면 크게 신라에 나라를 앗긴 뒤 그 유민들이 겪었을 역사, 고려시대 원나라 왜구 정벌과 맞물려 겪었을 특별한 수탈과 조선시대 특히 임진왜란 정유재란 사이 일곱 해 남짓 동안 왜적들이 저질렀을 술한 수탈의 역사, 게다가 경술국치를 앞뒤로 한 시기부터 김해평야의 개발과 그에 따랐던 이 지역민들의 고난, 더 올라서 경인전쟁기 동안 피난지로서 겪었던 특별한 역사, 그 뒤 처음으로 겨울 비닐 하우스 재배가 시작된 곳이라는 점이 말해 주듯이 근교농업과 대도시의 위성 도시로서 겪었을 특별한 경험들을 들 수 있겠다.

로 겪었을 아픈 역사는 분산성의 개별성을 밝혔다. 둘째도막에서는 분산성 바깥에 널린 경관으로 눈길을 돌리며 그 아픈 역사를 우리 “國土”가 겪었을 겨레사로까지 넓혔다. 마지막 도막에서는 세월이 많이 흘러 지나간 그때의 아픈 역사들은 핏물 절어 “비린 몸”이 씻기듯 “씻겨갔지만”, 그럼에도 “마른 魂”처럼 바람에 날리고 있는 “血竹”의 흔적과 서술을 읽어내고 있다.

분산성이라는 장소에서 그 역사의 흔적을 읽어내는 짜임새 위에 그것이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음을 힘주어 말하고 있는 전형적인 장소시다. 가야사 층위에 머물렀던 시인의 눈길이 유일하게 아래로 내려온 예외가 된다. 분산성과 만장대가 있는 분산이 김해의 진산이며 읍에서 볼 때 가장 높은 중심 지표물로 시인에게는 익히 새겨진 친밀장소였다는 중요도가 크게 작용했던 까닭이겠다.¹⁴⁾

이제껏 그의 장소시가 가야사에 국한된 막연한 역사지리적 시각을 보이고 있음을 살핀 셈이다. 이것은 김해시 범위 안에서 가야사를 중심 층위로 하는 드날려진 역사경관이나 장소에 치우친 그의 대상 선정에서 이미 예견된 일이다. 장소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이 없이 이미 상식이 되어버린 통념을 충실하게 따를 뿐 역사에 대한 상상적 확대나 신선한 재해석이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른바 ‘재장소화’의 역동적 인식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① 서편으로 가다 만난 바다에 목을 놓고

- 14) 분산성이 있는 분산은 김해시 동쪽에 돌아 있는 김해의 진산이다. 분산을 중심으로 하여 서쪽으로 펼쳐 내려온 구산 기슭에 구지봉이 돌아 있고 동으로는 신어산과 맞닿았다. 이 곳에 있는 분산성은 전형적인 산성이다. 임진왜란 때 지은 성축기城築記가 남아 있으나, 아마 가야 때 만들어졌던 산성이었는데, 임란 때 되쌓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 곳 분산성 안에는 만장대라는 경관이 있고, 해운사라는 조그만 절이 있다. 이 절은 옛 절터에다 60년대 새로이 올린 것인데, 수로왕과 허왕후의 영정이 모셔져 있고, 그 아래 봉돌이라는 갈돌이 있어 영험을 바라는 부녀자들이 드나든다. 성터는 보존상태가 좋은 편이다. 사적 66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와 비슷한 산성터가 가까운 주촌, 생철, 그리고 진례에도 있는데, 이들은 임진왜란 때 왜적들이 쌓았던 바닷쪽의 죽도, 구포, 물금, 안골포의 왜성들과 맞서는 우리성이다. 시인은 <盆山城에서> 말고도 같은 장소를 노래하고 있는 <萬丈臺>를 남기고 있으며, 첫시조집 이름을 「萬丈臺」라 붙였다. 이로 미루어 김해가 안태고향인 그에게 있어 만장대가 지니고 있는 공공적 장소감에 더해 친밀 장소로서의 깊은 뜻은 충분히 짐작되는 일이다.

하늘의 일로 간절한 백성이 살았나니
계육일 해가 그리운 구간이 살았나니.

(줄임)

거북이 앓은 남녘땅 시름 안개 걷히고
축원 속에 떠오르던 開國의 봉우리여
옛터전 精氣 일구는 백성이 살고 있나니.

- <龜旨峯> 가운데서

- ② 이글거리는 해의 나라 천정이 보고 싶어
구지봉 이웃 언덕 저승집 지으시고
未婚의 푸른 바다에 발 적시고 사시네.

임 뵈옵던 물결 萬里 시대의 가을 햇살
千年을 고스란히 금벌에 출렁이고
鄉愁의 사르비아꽃 손수 가꾸시며 사시네.

- <許王后陵> 가운데서

神魚여, 그대 고향은 갯지스 피안의 江
옛마을 아요오디아 대문 옷목에 사는
벵골만 바다를 건너 有情한 文人이 만난.

- <納陵正門> 가운데서

- ③ 七點山 일곱 봉오리 물그림자 사이로
仙人은 絃을 안고 물가에 깃들였더라
풀어논 파도 소리에 居登王은 넘실대든가.

(줄임)

어여머리 숲새로 숨결도 삭아도는
바윗속 연꽃 속에 아득한 龍巖이여
앞자락 七月 들에서 千古의 흥을 그린다.

- <招仙臺> 가운데서

구지봉이 지닌 개별성은 셋으로 모아볼 수 있다. 첫째 가야 건국신화가 비롯되는 장소, 둘째 수로왕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일컬어지는 김해김씨로 볼 때는 씨족시조 탄강지, 셋째 매우 이른 때에 불리워졌다고 생각되는 신성

스러운 신맞이굿 또는 그와 관련되는 주술적인 노래의 배경장소가 그것이다. 셋 가운데서 어느 쪽에서 보든 구지봉은 중심 상징, 곧 세계축으로 이해된다.

①은 구지봉이 세계축이라는 구조적 이해 위에서 가야 건국의 위치와 그 내용을 담은 정치 모델이 열개로 작용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 시에서는 두 방위가 드러난다. 첫도막 첫줄 “서편으로 가다 만난 바다”와 셋째도막 첫줄 “거북이 앉은 남녘 땅”이 그것인데, 이 방위로 미루어 시인은 수로왕족이 남서진하여 내려온 북방기마족이라는 통념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하늘의 일로 간절한 백성”이나 “계육일 해가 그리운 구간”이라 했으니 가야는 해를 떠받들며 농사를 업으로 삼은 태양족에 의한 농업국이라는 인식도 보여준다. 거기다 “거북이 앉은”이라고 했으니 흔히 김해지역 사람들이 믿고 있는 바와 같이 구지봉은 구간을 몸으로 하여 번어내려온 거북이 머리 형상이라는 풍수적 통념을 받아들였다.¹⁵⁾

허왕후의 내력을 본풀이하듯 밝히고 있는 노래가 ② 가운데 첫 작품이다. 허왕후는 씌어진 그대로 “물길 만리” 떨어진 “해의 나라” 인도 “겐지스 피안”의 “옛마을 아요오디아”에 있었다고 하는 ‘아유타국의 공주’로 여겨지고 있다. 허왕후 신분에 대한 이러한 얇은 가아가 남방·해양문화 영향을 깊이 받고 있었던 국제적인 나라였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② 둘째 시줄은 수로왕릉 정문에 그려져 있는 두 쌍의 신어문양을 빌어 “향수”에 젖어 있는 이국여인의 시집살이 심정을 들내보이고자 했다. 허왕후가 인도 옛나라 공주로 배를 타고 왔다는 일반 해석을 따르고 있는 셈이다.¹⁶⁾ 그리하여 허왕후가 지

15) 이제껏 논의된 거북의 실체 문제를 놓고 성기옥(1987)은 제의의 희생물로 보는 생각, 성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생각, 토렘동물로 보는 생각으로 간추렸다. 이즈음 업국현(1993)이 새로운 해석에 이르고 있어 눈길을 끈다. 그는 구지가를 가야의 최초시조가 죽은 뒤에, 신년의 우주갱신례 때 시조의 무덤 앞에서 죽음을 슬퍼함과 아울러 새로운 군장(왕)의 탄생(시조의 재생)을 빌며 부른 노래라 본다. 이때 거북은 성스러운 신의 세계에서 속된 사람의 세계로 우두머리를 모셔오는 성수聖獸가 된다.

16) 허왕후의 실존에 대해서는 가락국기 기록을 그대로 따라 인도 아유타국에서 왔을 것이라는 설이 흔히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설은 아동문학가 이종기(1977)가 인도여행을 통해 ② 시에서 “땡골만 바다를 건너” 간 “有情한 文人”으로 들내고 있다) 아유타국 신어문장과 김해 남릉정문 신어문양을 견주

났을 향수가 남달리 깊었을 법하다는 개연성을 높였다.

③은 초선대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초선대는 먼 옛날에는 김해만 물가 가까이 있었던 섬이었을 듯 싶지만, 지금은 들 가장자리에 앉은 바위로 된 명승이다. 전설에 따르면 신선들이 이 곳에 앉아 지금은 김해비행장 공사로 사라져버린 칠점산을 바라다보며 노닐었다고 하는 아름다운 곳이다. 신선들이 노닐었던 바위에 장기판이 그려져 있다고들 해서 옛 이야기를 믿게 했다. 그 가운데 높이 솟은 한 바위에는 커다란 불상이 새겨져 있다. 이 시는 그 아름다운 경관에 담긴 전설을 일러주고 아직도 남아 있는 돌새김 상을 거동왕으로 고증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바위속 연꽃 속에 아득한 龍顏”이 그 점을 또렷이 보여준다. 시인은 그 돌새김 상을 굳이 가야왕계 가운데 한 분인 거동왕으로 비정함으로써 가야사 중심의 상식을 곧대로 따르고 있다.¹⁷⁾

앞에서 글쓴이는 김영수 시조가 보여주고 있는 지리학적 상상력이 역사지리에 치우치고 있으며, 그 특성은 범위로는 김해시 중심, 층위로는 가야라는 두 조건을 만족하는 장소이미지를 지니고 있음을 살폈다. 게다가 그것은 막연하거나 통념으로 굳어진 역사 기술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점은 물론 이미 드물려진 역사경관과 그 뜻을 다룸으로써 그 보기가 많지 않은 향토시로서 자신의 시가 지닐 바 교육적 값어치를 고려한 탓이겠다. 아울러 지역민들의 공감을 일정 수준까지 얻어내면서 지역문화를 널리 알리겠다

어 허왕옥의 고향이 인도 아유타국이었음을 밝힘으로써 구체성을 얻게 되었다. 그런데 김병모(1991)는 이러한 생각을 더욱 꼼꼼하게 살펴 허왕옥이 김해에 이르기까지 거친 길과 그 사정에 대한 새로운 추정을 하고 있다. 그는 허왕옥의 비명에 새겨진 보주태후라는 휘에 주목을 하여 인도 아유타국에서 지금의 중국 사천성인 옛 보주로 망명하여 건너와 살다 다시 배를 타고 김해로 옮겨왔을 것이라는 추정을 하고 있다.

- 17) 거동왕은 김수로왕의 맏아들이다. 초선대 바위에 새겨진 그림이 불상이나 거동왕상이나 하는 것은 뚜렷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다. 초선대 자체가 거동왕 전설의 증거물이 되고 있는 데다 음각 새김줄이 분명하지 않은 까닭이다. 그 모습을 사람이라 보면 특이한 모습이다. 시에서 “그대 고향 선조를 외탁한 거동왕”이라 표현한 것은 그 특이한 모습은 인도사람의 피가 섞인 탓에 그럴 수도 있다는 개연성을 높였다. 역사학계에서는 그 상을 부처상으로 보고 있다. 지방유형문화재 78호로 지정되어 있고 그 풀이에도 석불이라 밝혔다. 그리고 지금은 그 불상을 받드는 절이 세워져 있다.

는 자신의 의도가 제대로 살아나도록 하기 위한 배려일 수도 있다. 문제는 이 때문에 그의 장소시가 차츰 혼한 회고시 수준으로 떨어질 위험을 안고 있다는 점이다.

3. 장소이미지와 재장소화의 두 방향

김영수의 장소시가 김해를 중심으로 일어났다 사라진 금관가야 역사 경관이나 장소에 초점을 두고, 그것들에 대한 상식적인 인식을 펼쳐보이고 있음을 살폈다. 이렇다 보니, 그의 시에는 신선한 장소 인식이나 기존 장소감에 대한 재장소화가 일어나지 않아 시적 울림이 덜한 편이다. 따라서 시인으로서는 이를 벗어나기 위한 방도를 마련해야 했을 터이다. 이때 그것은 크게 두 길로 나뉜다. 첫째는 시 속에 설화적 상상력을 이끌어들이어 시 공간을 넓혀나가는 길이다. 둘째는 역사문화 경관이나 장소에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자신의 체험을 뿌리내리는 길이다. 이 둘이야말로 상상공간을 넓히고 창조적 변형을 일으켜 새로운 장소이미지를 마련할 수 있는 길이었다.

1) 설화공간의 수용과 확대

사람은 과거를 짊어지고 사는 존재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과거를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풍토적 과거를 짊어지는 것”(和辻,1994.23)이다. 이 말은 공식적·형식적 역사보다, 그것을 더욱 충실하게 만들어 주는 풍토야말로 사람의 삶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땅의 인문적 환경이나 지지·지형·경관을 통털어 묵은 말로 풍토로 받아들인다면, 마침내 역사의 결집질을 더욱 두텁게 해주는 것이 풍토라는 생각이다. 모든 역사는 풍토적 역사인 셈이다. 그런데 이러한 풍토적 역사를 매개해 주는 주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설화다. 설화는 공식적·형식적 역사를 굴절, 변형시키면서 그 속에 자신의 자리를 마련할 뿐 아니라, 풍토적 내면성에다 구체적인 역사의 꿈을 실현시켜 준다. 사실성과 공식성에 기울어져 있는 역사와 또 다른 환상이라는 힘을 장소에 마련해 주는 것이다. 시인은 여러 대에 걸쳐 이어지

고 쌓여온 설화공간을 시 속에 끌어들임으로써 공식 역사를 넘어서는 장소의 상상적 변형을 이루고자 했다.

- ① 그렇기로 소년 黃洗여
오줌 겨루기 하자면

出如意 어린 娘子
그 낭패를 어찌라고

바위에 몸을 숨기고
삼(麻)대로 어찌라고.

男裝으로 감춰도
수줍음이 보이던가

거북내가 떡감자고
자꾸 조르기만 하고

父命을 벗은 얼굴이
비치면 정말 어찌라고.

-<黃洗바위>18)

- ② 금바다에 살 고기는 하늘에나 비늘빛
공양돌을 빠뜨려 억만년 숨을 주고
둘러진 8폭 병풍을 일러 神魚山이다.

물에 오를 때 길동무는 영험한 돌거북이
송퇴에 귀를 씻고 돌아와 앉은 靈龜庵
안갯골 목은 기와장 한 경계를 여닫는가.

꿈과 여명 틈서리로 西林寺 범종 소리
水墨빛 풀던 화공이 떠나간 가을산에
和尙은 千年을 가고 단풍은 千年을 오고.

~<神魚山>

18) 본디 이 시는 「봄에」에 실었던 <黃洗 장군과 如意 낭자>라는 1, 2로 된 연작 시 가운데서, 부마로 황세를 보내고 절개 지킬 것을 결심하는 여의의 속말로 된 2를 지워버리고 설화적 정황으로 이루어진 1만을 남긴 채 되실었다.

①은 봉황대 능선에 자리잡고 있는 개라암, 곧 황세바위·여의바위에 얽힌 설화를 고스란히 따랐다. 따놓은 시줄은 그 가운데서 남장여인이었던 여의가 겪었을 “낭패”스러움을 말할이가 안스럽게 여기고 있는 상황이다.¹⁹⁾ “父命”에 따라 “男裝으로” 지내고 있었던 출여의는 황세가 오줌 멀리누기로 겨루기를 하자고 할 때 “삼대”로 오줌줄기를 만들어 그 위기를 넘기지만, “거북내”에서 떡감자고 할 때는 하는 수 없이 “父命을 벗은” 채 황세에게 자신이 여자임을 밝히게 된다. 이 시는 그 사실을 밝히기 바로 앞 상황까지 시 속에 담았다. 설화 속 상황이 시인의 참여자적 눈길과 말솜씨에 온전하게 담겼다.

②는 이와 달리 시인이 자신의 상상력이나 지각력에 힘입어 설화를 적극적으로 변형시키고 있는 작품이다. 겉으로 보면 신어산은 김해지역에서 볼 수 있는 대규모 자연경관이다. 그러나 이 곳은 “神魚” 이름부터 그리하지만 가락나라 장유화상이 세웠다고 일러오는 서림사, 동림사를 비롯하여 영구암과 같은 옛과 요즘의 절들이 널려 있는 주요 문화경관이다. 게다가 크게 여덟 봉우리로 이루어진 신어산은 그 다섯 번째 봉우리를 영구봉이라 부르는데, 이 봉우리는 구지봉과 마찬가지로 거북이와 연관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이채로움이 더하다. 시인은 이와 같이 신어산과 연관이 있는 여러 전설과 옛사적을 오늘날의 김해들이 본디는 “금바다”였다는 깨달음과 적극적으로 묶

19) 황세바위와 여의낭자 전설을 남도영(1986:93~99)에 따라 간략하게 보이면 아래와 같다. ①금관가야 9대 숙왕 때 황정승과 출정승이 있어 서로 사돈 맺기로 약조하였다. ②황정승은 아들 세를 낳고, 출정승은 딸 여의를 낳았으나 출정승이 마음을 바꾸어 아들을 낳았다 속였다. ③세와 남장한 여의는 함께 서당엘 다녔는데, 여의를 의심한 세가 오줌멀리누기 겨루기를 하자고 했을 때 여의는 삼대로 오줌줄기를 만들어 그 어려움을 벗어났다. ④어느 여름 거북내에서 떡을 감게 되자 하는 수 없이 여의는 자신이 여자임을 털어놓았다. 출정승도 이야기를 듣고 세가 장차 뛰어난 인물이 될 것을 알고 돌의 혼인을 허락하였다. ⑤얼마지 않아 신라군이 쳐들어오는 바 되었는데, 세는 큰 공을 세웠고 그 공으로 임금의 명에 따라 부마가 되었다. ⑥파혼을 겪은 여의는 끝내 혼자 살다가 스물넷에 죽고 말았다. ⑦세도 여의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슴에 품은 채, 공주와의 혼인생활을 더 잊지 못하고 죽었다. ⑧사람들은 두 혼을 위로 하기 위해 그들이 뛰놀던 봉황대 개라암 위에다 돌을 엮어두고 황세바위 여의바위라 불렀다. ⑨그 뒤 공주도 두 혼을 위로하기 위해 건너 유민산에 들어가 살다 죽었다.

어보고 있다.²⁰⁾

첫도막에서는 “금바다에 살 고기”인 신어가 “하늘에” “들러친 8폭 병풍”이 “神魚山”이라 해 신어산의 내력을 밝혔다. 이어서 둘째도막에서 그 신어가 “물에 오를 때” “영험한 돌거북이”를 “길동무”했다 하여 신어산 여덟 봉우리 가운데서 다섯 번째인 영구봉과 그 아래 놓여 있는 영구암을 묶어 말하고, 그 영구암에서 안개 낀 날 내려다 보는 경관이야말로 새로운 “경계”를 열 만큼 빼어난 것임을 노래했다. 이어서 셋째도막에서는 영구암에서 내려다 본 아랫쪽 서림사를 중심으로 한 신어산의 “가을산” 경치를 노래하며 신어산의 아름다움이 “千年”에 또 “千年”을 잇도록 오래 것임을 말했다.

따라서 이 시는 첫도막에서 신어산의 유래와 외양을 산 아래쪽에서 크게 그린 다음, 둘째도막에서는 신어산 여러 봉우리 가운데서 다섯째 봉우리인 영구봉과 그 아래 영구암, 그리고 거기에서 빚어내는 가장 빼어난 경치를 노래하고, 마지막 셋째도막에서는 신어산을 아래로 훑어보며 신어산의 옛과 이제 그리고 내일이라는 시간감을 두루 적고 있는 셈이다. 시인이 꾸는 설화적 “꿈”과 안개 내린 “여명”의 현실을 오가며 신어산 산행을 좇는 동적인 짜임새를 지녔다.

이때 “和尚”이란 두 가지 뜻이 겹쳐 있는 표현이다. 서림사 영구암에 맞닿은 생각으로 가야불교를 퍼트렸다고 하는 허왕후의 오라버니 장유화상이 그 한 뜻이다. 시인의 적극적인 “꿈” 속에서 볼 때 신어산 영구봉과 그 형상은 장유화상이 “돌거북이” 영구봉을 타고 인도 아유타국 그의 고향으로 가고자 하는 오랜 꿈이 서린 것으로 읽힌다. 다른 하나는 “水墨빛” 풀어놓은 듯한 가을 아침 신어산 단풍의 아름다움이 신어산에서 오래 터잡고 금어 노릇을 하며 살았던 “和尚”이 있어 그가 빛깔을 풀어 빼어난 가을단풍을 천년 넘게 만들어 놓고 있다는 생각이 그것이다. 시인은 두 뜻을 하나로 겹쳐 “和尚은 千年을 가고 단풍은 千年을 오고”라는 뛰어난 마지막 시줄을 얻고 있다. 시인의 적극적인 설화공간의 수용과 변형이 울림 큰 시를 이루어 놓고 있는

20) 「駕洛의 傳說」(1987) 가운데서 ‘가락의 명승고적’은 김영수가 쓴 것으로 여겨진다. 그는 이 곳에서 그가 이미 시를 쓸 때 마련되었던 생각을 명승고적 해설에서 되풀이 하고 있어 자작시 풀이로까지 읽힐 만하다. 특히 <招仙嶽>와 <神魚山> 해설 부분은 같은 이름의 시조와 넘나들이 매우 크다.

좋은 본보기이다.

시인은 이밖에도 <招仙臺>를 비롯하여 <仙遊臺>, <綾峴>, <유궁>, <林虎山>과 같은 작품에서 낱말의 장소에 얽혀 있는 신선이야기나 허왕후의 초행길이야기와 같은 설화를 시 공간에 끌어들이고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부분 인유에 머물고 있을 뿐 <黃洗바위>와 같은 전면적인 수용이나 <神魚山>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적극적인 변형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 설화적 모티프는 장소의 개별성에도 환상성을 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시인은 그것을 널리 쓰고 있지는 않은 쪽이다. 시조라는 형식 스스로가 이야기나 사건을 담아내기 쉽잖은 단형이라는 점에다, 시인이 장형시조나 서서시조보다 단형시조에 공력을 쏟았다는 점과 이 일이 무관하지 않을 듯 싶다.²¹⁾

2) 직접체험과 역사적 시간성

사람의 지각은 매우 부드럽고 적응하는 힘이 풍부하다. 따라서 어떤 경관이나 장소의 한 부분을 판별하는 일이나, 중요한 세부를 느끼고 그것에 뜻을 부여하는 힘은 어떠한 집단이나 개인에게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지각의 유연성뿐 아니라 물리적인 형태도 똑같이 중요한 역할을 지닌다. 말하자면 사람은 눈으로 가려뽑을 힘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꼭 사람의 눈길을 끌어당기는 시각적 특질을 갖춘 것도 있는 것이다. 눈길을 끄는 경관도 있고 그것을 물리치는 경관도 있으며, 조립이나 식별을 쉽게 하는 환경이 있는가 하면 그것에 저항하는 환경도 있다(Lynch, 1988: 216). 시인이 나아갔던 다른 한 길은 그렇듯 독특한 경관이나 장소에 대한 묘사나 즉물적 감각을 옮기는 것이었다.

달빛 푸른 봉우리
기슭을 도는 종이배
童話 속에 실으면
젖꼭지만 해질까

21) 장형에 드는 작품으로 여섯 번째 시집 「살며 사랑하며」에 실린 <살며 사랑하며>와 네 번째 시집 「봄에」에 실린 연작시조가 있으나, 그가 한결같이 힘을 기울인 창작의 본령은 단형시조에 있었다.

그리움
물가에 내린
仙女 복숭 하나.

-<露積峯>

녹산수문 가까이 돌아 있는 노적봉은 시각 형태에서 벌써 눈길을 끄는 곳이다. 이 돋보이는 경관을 시인은 “종이배”, “童話” 속에서나 있을 법한 “젓꼭지” 같은 것, 그리고 仙女 복숭이라는 셋으로 유추하고 있다. 갯가에 돌아 있는 특이한 지표물에 대하여 역사적 연원이나 설화적 전제에 이끌리지 않고 대상의 아름다움을 비유를 끌어들여 형상화함으로써 깔끔한 시가 되게 했다.

그러나 이런 감각적 형상을 지향하는 장소시는 그 장소가 깊어지고 있는 풍토적 과거를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시인으로는 즐거이 되풀이 할 만한 재미를 못느꼈던 듯 싶다. 보기가 한 편에 머물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따라서 시인은 즉물적 감각에 충실하려 하면서 한결같이 역사지리적 눈길을 놓치지 않고 있다.

① 古都의 가로등은
꽃으로만 퍼지 않고

八景 한 폭 虎溪落照
그윽한 빛도 살아

會峴洞 조개껍질을
冠인 양 쓰고 핀다.

물길 萬里 오신 분
望山巒 옛바다라면

설래던 진홍의 旗
가을 물결 부시듯

십육 세 아유타國 공주님
물그레한 모습이다.

- <街路燈>

② 밋 모른 어린 때는 할아버지 무릎 갈아
여러 손주 다 안겨도 푸근한 품만 갈아
별바른 양지 쪽에서 잠도 들었다이다.

아득한 옛날 옛적 안개 바다 구지봉
자주빛 줄로 오신 금합 여섯 알 중
첫째로 나신 본인 줄 까마득히 모르고

하늘이 띄우신 配匹 공주와 금슬 백년
보령 157세는 자비의 성정대로
崇善殿 홀로 계심이 궁금키만 하더이다.

앞뜰엔 돌호랑이 축생들도 敬拜하는
神魚文樣 納陵正門 칠쭈꽃 핀 봄날에
萬丈臺 丹田은 이곳 王陵인가 싶으이다.

- <金首露王陵>

②는 김해 “古都의 가로등”에 대한 신선한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서 시 흐름을 허왕후가 “망산도”에 닳을 내렸다 김해에 이르기까지에 걸치는 서사진행과 맞물리도록 했다. 가로등을 “꽃”으로 느끼는 틀에 박힌 인상에 머물지 않고 거기에다 역사적 시간성을 포갠다. “가로등”을 흔히 김해팔경 가운데 하나로 드는 “虎溪落照”의 “그윽한 빛”을 뿜는 것으로, 등갓을 회현리 조개무지의 “조개껍질” “冠”인 양 느낀 다음, 현재 김해시의 가로등들을 허황옥이 바다 건너 맨 처음 내려섰던 망산도 물에 널려 있었음직한 “진홍의 旗”로 상상하고, 그 불빛은 다시 “공주님”의 “불그레한 모습”에 전주었다.

말하자면 예사로운 도시경관에서 옛 역사를 읽어내는 눈길이라기보다 그것의 현재 감각을 그리되 역사적 시간성과 맞물린 상상적 눈길을 갖춤으로 대상이 지닌 뜻을 참신하면서도 풍부하게 넓혀주고 있다. 감각적 묘사라는 틀을 지니고 있음에도 시 공간의 부피와 울림을 더해 주고 있다. 향토에 대한 오랜 사랑과 남다른 관심 없이는 얻을 수 없는 감각이라 여겨진다.

②는 시인이 어릴적 몸소 겪었던 일을 축으로 삼아 장소감을 새로이 하고

있는 작품이다. 따라서 대상에 대한 즉물적 감각에 기울어지고 있는 <露積峯>이나, 더 나아가 역사적 시간성을 잃어내고 있는 <街路燈>과는 다른 구체성을 얻고 있다.

사람의 성장기를 되새긴다거나 그들의 회고록 또는 자서전을 읽게 되면 우리는 한결같이 어린 시절의 장소에 대한 매력을 발견한다. 자신만의 보호된 장소와 관련된 다양한 기억이야말로 거기에 몸담고 있다는 안정감을 준다. 친밀한 장소의 기억을 통해 우리는 안정된 지역사회의 일부라는 만족감을 맛보게 되는 것이다. 어릴적 “푸근한” 기억을 축으로 삼아 능의 주인인 수로왕의 탄생과 죽음에 이르는 한살이의 먼 역사적 시간성을 자연스럽게 알려줌으로 해서 수로왕릉이 지니는 장소감에다 직접성과 구체성을 더하게 하였다. 그러한 직접성과 구체성이 얽혀 이룬 즐거움이 “萬丈臺의 丹田”이라는 의인적 표현을 낳게 한 것이다. 주요한 결절지인 수로왕릉이 말할이와 지역민 모두가 한 향토사회 구성원으로 합일되는 단전, 곧 ‘신성한 중심’임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다. 어릴적 직접 체험이 바탕이 되고 있는 이러한 장소시는 재장소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이었던 셈이다.²²⁾

사람의 삶은 끊임없이 이어져 내리는 과거와의 대화 속에서, 곧 개별적인 삶의 개성적인 과거와 역사적인 과거, 곧 초개인적인 과거라는 두 과거와의 대화 속에서 발전되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와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과거의 삶을 현재의 삶 안에 끊임없이 뜻있게 변형시켜 집어 넣는 것을 뜻한다(O.F.Bollnow,1989:165). 이 시에서 “丹田”이라는 인식은 바로 그러한 변형의 과정이 역동적으로 한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잘라 보여주는 것이라 할 만하다.

22) 직접체험이 이음매가 되고 있는 장소시의 이러한 효과는 수로왕릉을 노래하고 있는 다른 시인의 작품과 견주면 뚜렷해진다. 보기를 하나 들면 다음과 같다. “왕릉의 푸른 솔은/옛과 다름 없지마는//인결은 간 곳 없고/문무석만 묵연히 섰네//뜰앞에 떨어지는 낙엽/천년전의 꿈이런가//산새도 고목위에/밤새워 슬퍼울고//가락투에 비친 달은/쓰리도록 차집구나//저 달아 너는 알리라/금관가야 옛 영화를.” <수로왕릉> (조호영,1992:89)
구체 체험에 닿아 있지 않은 공허한 영탄에다 틀에 박힌 말솜씨는 서투른 회고시 한 편을 만들고 있다. 시인의 역량 차이를 뛰어넘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개인사적 시간성과 공식적·역사적 시간성이 적절하게 동적 울림을 만들고 있는 이러한 작품은 드물다. 그의 '향토의 노래'에 실리지 않은 많은 시들 가운데서 자신의 어릴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들은 거의 모두 단순한 되새김에 머물고 있는 점과 더불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단순히 어릴적 기억에 기댄 유년 서정시와 역사지리적 감각 그 둘의 알맞은 이음자리에 이런 작품이 놓인다 하겠다. 바람직한 재장소화의 역동적 힘은 이러한 틀 위에서 가능한 것인지도 모른다.

5. 마 무 리

삶의 안정이란 낯선 세계의 조망에서 벗어나 위험 받지 않을 수 있는 친밀영역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바탕을 둔다. 이때 그 친밀영역이란 좁게는 개인공간일 수도 있고 향토 지역사회일 수도 있다. 오늘날 거듭된 산업화·근대화 진행은 지리적 공간 뿐 아니라 사회심리적 공간까지도 획일화·표준화함으로써 생활세계의 지배를 굳건히 하고, 친밀영역의 파괴와 해체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에 맞서 사람들은 그들의 지역과 지방을 되찾고 그에 대해 새로운 관심을 드높이기 시작했다. 세계에 두루 걸쳐 지역 구심주의(local centripetalism)로 특성화되고 있는 흐름이 그것이다(J.W.Miller, 1987; 10). 이 속에서 문학이 말아야 할 몫은 많다. 지역이미지의 개발과 쇄신도 그 가운데 하나다. 바람직한 문학 지역주의와 그에 따라 적극적인 지리학적 상상력이 요구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것은 지역 이해나 공동체 의식의 개발, 또는 구성원들의 정신적·감정적 만족뿐 아니라 지역교육의 자리로서도 그 쓰임새가 크다.

이 글에서 글쓴이는 김영수 시인의 시를 본으로 삼아 그의 시에 나타나고 있는 김해지역의 지역이미지와 장소감을 살펴보고자 했다. 그 결과 그의 시는 김해지역 가운데서도 김해시 중심의 부분지역에 국한된 경관이나 장소에 치우친 대상 선정을 하고 있었으며, 그 눈길도 정치, 경제, 문화 층위보다는 먼 옛적 가야사에 국한된 막연하고 상식적인 역사지리적 상상력에 머물고 있음을 알았다. 다양한 지역이미지 개발과 쇄신을 위한 노력을 시인은 크게

기울이지 못한 셈이다.

따라서 시인으로서는 시적 울림을 드높이며 새로운 장소성을 얻기 위해 나름의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였는데, 그것은 크게 두 방향으로 나타났다. 첫째, 설화공간을 끌어들이고, 그것을 적극 변형시켜 장소의 상상 영역을 넓히는 방향이다. 둘째, 시인의 직접체험과 그 추억이라는 개성적 과거에다 초개성적인 역사적 과거를 결합시킴으로써 보다 울림 큰 구체성을 얻어내는 방향이다. 시인의 장소시 가운데 뛰어난 부분은 이 두 방향에서 말미암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시인은 거듭 이러한 길을 좇아 신선한 재장소화를 이루어내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수 시인의 장소시는 향토사랑, 장소사랑으로 가득한 지역주의 시의 한 본이 되는 데에는 모자람이 없다. 앞으로 우리시는 장소의 정체성이 삶의 감각을 되살리고, 변화하는 삶이 장소에 깃드는 힘 있는 드라마를 품어 안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체적 사실성에다 환상성이 잘 결합된 적극적인 지리학적 상상력이 요구된다. 김영수 시를 살피면서 이 점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던 셈이다.

도 음 글

1. 기본자료

권정석 옮김(1984), 國譯 金海邑誌, 김해문화원.

김달범(1956), 金海金氏世德史, 정민문화사.

김영수(1967), 소용돌이, 김해인쇄사.

_____ (1979), 萬丈巖, 새글사.

_____ (1981), 어머니, 문학신조사.

_____ (1982), 봄에, 시로.

_____ (1984), 龜何龜何, 동백출판사.

_____ (1992), 살며 사랑하며, 동백문화.

김유동(1929), 全鮮名勝古蹟.

- 김윤식 엮음(1979), 駕洛史紀, 덕양전.
김해서 문화공보실 엮음(1987), 駕洛의 傳說, 김해시.
남도영(1986), 駕洛의 傳說, 종교문화사.
박경원(1955), 慶南의 古蹟과 그 文化, 동운사.
양승운 엮음(1956), 嶺南史蹟과 史話, 교통문화사 대한지편찬실.
이무영(1948), 古都勝地大觀, 조선여행사출판국.
이병태(1991), 金海地理誌, 김해문화원.
정원호 엮음(1985), 교남지, 오성사 영인본.
조호영(1992), 별똥별, 모아.
허성도(1959), 駕洛國記, 문해당서점.
경상남도(1937), 慶尙南道道勢概觀, 경상남도.
阿部薰 엮음(1937), 朝鮮都邑大觀, 민중시론사.

2. 연구논저

- 김병모(1991), '수로왕비의 비밀' ①~④, 조선일보 4.23, 4.30, 5.7, 5.14.
성기옥(1987), '<구지가>의 작품적 성격과 그 해석(2)', 배달말 12호, 배달말 학회.
엄국현(1993), '구지가연구', 어문론총 27호, 경북어문학회.
이은숙(1992), '문학지리학 서설', 문화역사지리 4호,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이상석(1990), '인문지리학의 인식론에 관한 연구:실증주의와 인간주의', 인문 과학연구 19집, 전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이종기(1977), 가락국 탐사, 일지사.
임덕순(1990), 문화지리학, 법문사.
정진원(1984), '인간주의 지리학의 이념과 방법', 지리학논총 11호, 서울대학교 지리학회.
최동원(1990), '가락국기고', 고시조논고, 삼영사.
Asa Briggs(1975), 'The Sense of Place', The Quality of Man's Environment, Voice of America Forum Series.

- C. N. Schulz(1991), The concept of dwelling [이재훈 옮김, 주거의 개념(태림문화사)].
- Douglas C. D. Pocock(1981), Humanistic Geography and Literature, Croom Helm London.
- O. F. Bollnow(1989), Padagogik in anthropologischer Sicht [오인택·정혜영 옮김, 교육의 인간학(문음사)].
- K. Lynch(1986), A Theory of Good City Form [양동양 옮김, 도시형태론(기문당)].
- _____ (1988), The Image of City [황성수 옮김, 도시의 상(녹원문화사)].
- R. J. Johnston과 여럿 엮음(1992), The Dictionary of Human Geography [한국지리연구회 옮김, 현대인문지리학사전(한울)].
- J.. W. Miller(1987), 'Anytime the ground is uneven : The outlook for Regional studies and what to look out for', Geography and Literature(W. E. Mallory and P. S. Housley ed., Syracuse Univ. Press).
- 北村貞太郎(1972), '地域科學と地域研究の統合への試論', 國際地域研究3, 경도대학국제지역연구회..
- 和辻哲郎(1993), 風土-人間學的 考察 [박건주 옮김, 풍토와 인간(장승)].
- 芳賀登(1985), 地方史の 思想 [여박동·소립행부 옮김, 地方文化의 保全(교육과학사)].